





# 금속공업부문이 가치를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자

##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체급은 당파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길아래 창성강화되어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맘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일부를 출렁히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여기는 산소열법용광로전투현장이다.

쏴-쏴- 기세차게 돌아가는 총총기소리, 뛰어온 쇠물을 품어안고 용-용- 용을 쓰는 용광로, 그 무영한 등을 달고 제시한 새로운 전략으로 선봉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의 불불의 기상인양 우리의 심장을 광활로린다.

주체의 농수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장쾌한 광경, 여기에는 이곳 용해공들의 결사적인 용광로보수전투의 5일에 대한 이야기가 짚어있다.

지난 4월 중순 산소열법용광로보수전투를 진행할 때였다.

기존공식대로 로를 보수하자면 최소한 20일은 걸려야 하였다.

그러나 주체생산이자 광조국의 전진속도라는 비상한 자각을 암고 살며 투쟁하는 황철사람들에게 있어서 20일은 말도 되지 않았다. 용광로의 숨결은 그것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였다.

용광로를 세운지는 불과 몇시간, 그간의 온도는 수백°C. 파연 누가 그orian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바로 그 죄지 않은 로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고열속에서의 보수작업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불덩이같은 로안으로 남먼저 들어간 그가 바로 로장 리니원동였다. 그는 10분가량이 지나서야 로밖으로 나왔다.

그 10분은 꿈一样에 작업조들의 전투시간으로 정해졌다.

드디어 비상한 각오를 단은 용해공들이 끄적여온 로속으로 뛰어들었다.

용광로의 숨결을 느끼며 만시를 놓이고 장쾌한 불의 대하를 보아야 밤낮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황철사람들이었다.

정녕 경제선풍의 북소리, 화선선풍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일군들과 조업원들은 한동안 힘들게 되어 용광로보수를 경행하는 전투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누구나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워 절투현장에서 식사를 하였고

로비단을 해체해 나갔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바로 이것이 그들모두의 심장마다에서 쇠물처럼 뿐어넘친 억척의 신념이고 총정의 맹세였다.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산소열법용광로보수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뿐이 번지었다.

일군들의 위치는 사무실이 아니라 둘들은 전투현장이었다.

그들은 5일동안에 생산준비를 끝내 대단한 목표를 내세운 대

중의 양양한 기세에 맞게 단계별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확

선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

을 더욱 빛없이 짜고들었다.

한초한초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기동에 출선동과 외녀명원들은 물론 후방부문의 종업원들도 달려왔다.

용광로의 숨결을 느끼며 만시를 놓이고 장쾌한 불의 대하를 보아야 밤낮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황철사람들이었다.

손에 땀을 흘리는 분분초초였다. 허용시간이 지났다는 다음감에 힘들이 흘리는 속에 용해공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내려고 로안에서의 작업시간을 스스로가 연장하였다.

고열로 하여 숨쉬기가 힘들었고 온몸은 불덩이를 안은듯 말아울렸지만 그들은 물에 적신 발판을 가로질러놓고 한치치지

족참에 들었다가도 높뛰는 황철로동계급의 빛나는 투쟁의 분분초초가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하기에 용광로직장과 설비조립직장, 건설제작장, 측로직장의 조업원들을 비롯한 황철로동계급은 보수전투를 시작한지 단 5일만에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다.

파연 그 나날 누가 쉬임없는 작업으로 충렬진 자기의 눈을 의식했던가. 용광로의 보수보다자 물을 먼저 걱정하며 일터를 순간이라도 떠난 용해공이 있었던가. 낮밤 밤이 따로 없이 전투장에 울려펴진 경제선동의 북소리, 화선선풍의 북소리논이 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장의 대답이었다.

우리는 보수전투의 나날에 있던 가지지의 이야기를 다 전할수는 없다.

그러나 혁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판정을 위한 두정으로 물려고 있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정뿐이겠는가.

강철로 당을 밟았던 황철의 자랑한 전통을 걸어나가는 늘내여갈 맹세가 불타고있었다.

온 직장이 불도가니마냥 뿐이 만단한 혁신의 날을 앞당기 위해 피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싸우던 영웅전사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전후 세대미우에서

## 강선의 전통을 위훈으로 빛내이리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인발강관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광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맑아달갑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밟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구하고나가야 합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낫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펴열보를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그렇다. 오늘 황철에서는 혁신과 산을 낫에 떠난 하루하루를 생활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나라의 강철기둥을 출전히 차지하기 위해 침입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휘둘러고 있다.

매일과 같이 철강제생산실적을 높이고자자기들의 충정의 높이를 검증받으며 보다 큰 위험을 면지며 적극적으로 일터를 순간이라도 떠난 용해공이 있었던가. 낮밤 밤이 따로 없이 전투장에 울려펴진 경제선동의 북소리, 화선선풍의 북소리논이 걸에서 단 한걸음도 물려설 수 없다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장의 대답이었다.

직장의 원 조건을 놓고 볼 때 보통의 각오나 준비정도로는 공사를 광화국장건설 일흔까지 끌어내기 위한 격전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의 줄엄한 대중대를 조성된 난관을 박차고 철제작업부에 조성된 난관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한몸의 위험도 이곳에 대중을 혁신으로 풀어내기 위한 혁신으로 전개하였다.

진경섭, 박기철, 리영준동무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품을 본받아 맹렬한 충격전을 펼쳤다.

오늘도 이들은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생활공정현대화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힘겨운 전투였다. 로바닥의

150%는 문제없는듯 기쁨이 한껏 어려웠다.

18호 함금철로에서도 출철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이곳 용해공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슬퍼버이는 쇠물이 또다시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이번 신념과 맹세를 암고 오늘의 충공제의 전렬에 선 미더운 용해공들은 철물처진자들, 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현신성에 따라 전진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비우는 출철을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출철준비가 끝나자 교대장고

장터동무의 구령소리가 울린다.

때를 같이하여 용해공들이 민첩하게 쇠장대를 출칠구에 박는다.

순간 주烘팅의 쇠물이 수천수만의 불보라를 날리며 뿐어져나오기 시작한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쇠물이 쏟아져내린다.

인발강관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십일에 걸려온 끝에 한 몸의 공사파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빛이 밝게 물든다. 오늘 계획

150%는 문제없는듯 기쁨이 한껏 어려웠다.

18호 함금철로에서도 출철을 알리는 신호가 울린다.

이곳 용해공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슬퍼버이는 쇠물이 또다시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이번 신념과 맹세를 암고 오늘의 충공제의 전렬에 선 미더운 용해공들은 철물처진자들, 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현신성에 따라 전진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비우는 출철을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출철준비가 끝나자 교대장고

장터동무의 구령소리가 울린다.

때를 같이하여 용해공들이 민첩하게 쇠장대를 출칠구에 박는다.

순간 주烘팅의 쇠물이 수천수만의 불보라를 날리며 뿐어져나오기 시작한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쇠물이 쏟아져내린다.

인발강관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십일에 걸려온 끝에 한 몸의 공사파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빛이 밝게 물든다. 오늘 계획

150%는 문제없는듯 기쁨이 한껏 어려웠다.

18호 함금철로에서도 출철을 알리는 신호가 울린다.

이곳 용해공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슬퍼버이는 쇠물이 또다시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이번 신념과 맹세를 암고 오늘의 충공제의 전렬에 선 미더운 용해공들은 철물처진자들, 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현신성에 따라 전진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비우는 출철을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출철준비가 끝나자 교대장고

장터동무의 구령소리가 울린다.

때를 같이하여 용해공들이 민첩하게 쇠장대를 출칠구에 박는다.

순간 주烘팅의 쇠물이 수천수만의 불보라를 날리며 뿐어져나오기 시작한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쇠물이 쏟아져내린다.

인발강관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십일에 걸려온 끝에 한 몸의 공사파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빛이 밝게 물든다. 오늘 계획

150%는 문제없는듯 기쁨이 한껏 어려웠다.

18호 함금철로에서도 출철을 알리는 신호가 울린다.

이곳 용해공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슬퍼버이는 쇠물이 또다시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이번 신념과 맹세를 암고 오늘의 충공제의 전렬에 선 미더운 용해공들은 철물처진자들, 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현신성에 따라 전진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비우는 출철을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출철준비가 끝나자 교대장고

장터동무의 구령소리가 울린다.

때를 같이하여 용해공들이 민첩하게 쇠장대를 출칠구에 박는다.

순간 주烘팅의 쇠물이 수천수만의 불보라를 날리며 뿐어져나오기 시작한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쇠물이 쏟아져내린다.

인발강관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십일에 걸려온 끝에 한 몸의 공사파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빛이 밝게 물든다. 오늘 계획

150%는 문제없는듯 기쁨이 한껏 어려웠다.

18호 함금철로에서도 출철을 알리는 신호가 울린다.

이곳 용해공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슬퍼버이는 쇠물이 또다시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이번 신념과 맹세를 암고 오늘의 충공제의 전렬에 선 미더운 용해공들은 철물처진자들, 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현신성에 따라 전진로를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끌어내린다.

그들은 한몸의 열기마다에 쇠물들이 비우는 출철을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특색있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꾸리자

216 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삼지연군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면시기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백두산전역에서 거창한 창조의 희성이 울리고 있다.

불파 수십일만에 하부당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 살립집과 공공건물기초공사에 진입…

그야말로 기적이다.

비파불수록 기슴벼찬 이 현실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백두산이란 첫 동네에서부터로 동당민세소리, 사회주의 단체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며 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풀기자 흐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만가동시키는 한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장비들을

모두의 앙양한 열의 속에 하부

망공사를 위한 기초굴착이 단숨

에 추진되었다.

련이어 살립집, 공공건물기초공사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사단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쳤다. 공사실적이 점점

에 선 216사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담담한 기상과 용맹을 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헌신하여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광직위원인 창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사단은 1일제의 총격진에 떨쳐나선 것은 지난 3월이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되는 사이에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기록한 공사실적은 참으로 경이적

이다. 둘이켜보면 이들이 질풍같이 달려온 수십일간은 격동하는 시대의 부름에 어떻게 학답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궁지에는 나날이 이었다.

건설초기 건설에 전입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온 나라가 지켜보는 혁명의

성지건설에 참가한 궁지가 차고 넘치였다.

백두산이란 첫 동네에서부터

로 동당민세소리, 사회주의 단체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며 함

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풀기자 흐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을 기어이 실현

하기 위해 만가동시키는 한편 가동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장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리보수할

것을 호소하였다.

련이어 살립집, 공공건물기초

공사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사단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쳤다. 공사실적이 점점

에 선 216사단의 전체 지휘관

들과 돌격대원들의 담담한 기상과

용맹을 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헌신하여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광직위원인 창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사단은 1일제의 총격진에 떨쳐나선 것은 지난 3월이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되는 사이에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기

록한 공사실적은 참으로 경이적

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삼지연군구리기는 그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놀라워 전에 오직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해 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지휘관들은

하나의 비상대책을 세웠다.

이들은 려단, 현대에서 보

유하고 있는 중기계들을 전부 통

원하여 만가동시키는 한편 가동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장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리보수할

것을 호소하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어

기 백두밀림에서 우리는 자자자

강의 기지를 더욱 높이 들고나

가야 합니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지휘관들의 불같은 웨啐는 들판에

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백두산의 이르는 곳마다에

서는 지역자강의 미치소리가 세

차게 울렸다.

백두산영 웅청년련대에서는

기운이 더욱 높이 들고나

가야 합니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삼지연군은 드넓은 현대적인

거리가 들어앉을 수 있는 지반을

형성하여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사량이 너무 방대

하여 기계 수단의 도움이 없

이는 한걸음도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

더딘 공사속도를 놓고 하루동

안에 만도 어려운 조건을

회가 있었다.

협의회과정에 올린 지휘관들

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삼지연군구리기는 그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놀라워 전에 오직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해 야 한다.

전투를 벌여야 하는가를 보자면

현장에서 돌격대원들은 식사

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밥을

현장에 남더라도 먹으며 전투를

벌렸다.

시간이여 우리를 따르라.

모든 가능성을 충동원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대정리에서 난분제의 하나는

봄에도 녹지 않는 얼음땅을 깨내

는 것이었다.

한낮에 일정하게 녹은 얼음땅

을 험마와 푸страива로 이루면서

날과 날을 넘겨가면서 일자리

를 찾아낸 것이다.

당이 준 파업을 자기들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투쟁한

돌격대원들이 어찌 성, 중앙기판

현대기장을 뛰어넘어 일과 날을

넘어갔다.

총공격전의 발걸음소리가

울리자면 삼지연군 읊지구

전투장을으로 치페을 때마다

돌격대원들이 험마와 현장공

예술단체들의 창작가, 예술인

들도 전투원들과 함께 일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실장에 풀을 지

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 있는 혁명적 땅은 깊은 밤

이지만 불바다가 청진한 삼지연군 읍지구의 공공건물건축공사

장은 잠들 줄 모른다.

지금 여기서는 공사에 참가한

9 2 2 건설려단 평양시현대

## 과학농법을 틀어쥘 때 알곡증산의 돌파구가 열린다

### 금강군 현리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당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시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수 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 지력이자 알곡수확고이다

농사에서 지력을 올려우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의 도입도, 지력을 떠나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해 이 농장에서 또다시 최우수학년도 수준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해마다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농사작과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 농장의 전반적인 조건은 해발고도가 서평방법보다 높고 산골짜기와 하천기슭에 위치해 척박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농사가 안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판리위원장사업을 하게 된 서평방법으로 농장에서는 힘들어하면서 주변에 허우수를 찾고자 했지만, 그는 이 고장에서 오래동안 농사일을 해온 인원들과 실농군들, 초급임원들을 만나보면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알고보니 알곡생산이 오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지난 기간 땅이 나쁘고 농사조건이 불리하다는데로부터 조건을 농사가 내리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사리정연한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사업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력이 높고 농사조건이 척박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농사가 안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판리위원의 결심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농장에서는 거름생산을 높이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다.

제 7작업반은 일군들을 농경

쳐졌다. 이때 농장에서 잘한 것은 지난 기간 농사에서 제일 뒤떨어졌던 제 9작업반을 잘 도와주고 여기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다.

제 9작업반에 나간 관리위원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열마디 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거름생산투쟁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한편 농장원들은 푸석짚이 부족하여 여기저기에서 원천을 찾아내면서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작업반에서는 흡보산비료를 비롯한 각종 유기질비료 생산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날 작업반초급임원들은 전례없이 많이 생산된 거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여주기시험이 있다면 다음날부터 작업반초급임원들과 농장원들도 모두 거름생산전투에 한 사람같이 뛰쳐나섰다. 그리하여 모든 작업반에서 거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이 창조되었으며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알곡생산을 훨씬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자면 그 경계에 기초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유기비료의 질을 더욱 높일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유기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면서 몇몇 전 어느 날이었다.

제 7작업반은 일군들을 농경

이 몇몇이다. 흡보산비료의 질이 용당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것 같았다. 한결을 더 깊이 들어가 알아보니 작업반에서 흡보산비료의 질과 품에 대한 평가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작업반초급임원과 무리를 마주한 관리위원은 농장생산의 직접적당지인 농장원들이 생산의 욕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력을 높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방도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작업반에서는 흡보산비료를 비롯한 각종 유기질비료 생산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는데 힘을 넣었다.

한편 농장에서는 제 7작업반의 경험을 온 농장에 일반화하였다.

농장에서는 판리원들과 작업반들을 분장들을 평가성원으로 하고 농장원들의 유기질비료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자 했다.

이런 평가사업은 유기질비료 생산뿐 아니라 씨뿌리기, 모내기, 가을걷이와 날렵털기 등 한해농사의 매 영농공정들마다에서 실정에 맞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농장에서는 많은 거름과 흡보산비료를 생산하여 투입과 탈곡을 동시에 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날갈허설을 줄이었다.

또한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 두풀모아심기와 함께 생육상계로 주어 알곡생산량을 크게 늘리였다.

이렇게 하여 알곡생산량을 향상시키는 평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알곡생산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받아들이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씨뿌리기를 앞당겨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모판단에서 벼모의 생육상태를 보며 비료주기를 제때에 걸적으로 하며 모든 작업반에서 간단물대기, 포화수물대기 등을 밟아들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추위가 지난 시기보다 늦어지는데 맞게 가을걷이시기를 예정보다 늦게 정하였다.

이렇게 하니 이삭무가 최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농장에서는 포전에서 벼가을과 탈곡을 동시에 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날갈허설을 줄였다.

그리하여 알곡생산량을 향상시키는 평가사업은 유기질비료 생산뿐 아니라 씨뿌리기, 모내기, 가을걷이와 날렵털기 등 한해농사의 매 영농공정들마다에서 실정에 맞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농장에서는 많은 거름과 흡보산비료를 생산하여 투입과 탈곡을 동시에 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날갈허설을 줄였다.

또한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 두풀모아심기와 함께 생육상계로 주어 알곡생산량을 크게 늘리였다.

이렇게 하여 알곡생산량을 향상시키는 평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알곡생산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 말을 듣은 일군들은 좋은

### 옹진군 미래원에서

얼마전 우리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판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 속에 깊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일어서 옹진군 미래원을 찾았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증진시키기를 세우며 전민 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기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곳 미래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리명철관장은 1층의 대 출입문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어느 한 대 출입실에 가니 사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들었다. 『우리 손에는 책을 얼마나 두루, 책장을 읽는다니.』

이렇게 열성독자를 흥성하는 대 출입실을 거쳐 학생열람실에서 독서에 대한 열정으로 책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벽에 걸려온 책장을 높이게 하였다.

또한 전체 인민에게 의한 경제 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알곡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일련의 일정에 맞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판리원들은 제 7작업반을 대상으로 벼모의 생육기일을 조건으로 전개하였다.

농장에서는 판리원들이 일련의 일정에 맞게 전개하였다.

이어 2층에 꾸려져 있는 종합강의실에서 우리는 국가당을 통하여 인민대학당에 서 전개하는 원격강의의 기회를 받았고, 벼모의 생육기일을 보장하는 일정에 맞게 벼를 뿐만 아니라 알곡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이제는 대 출입실을 거쳐 학생열람실에서 독서에 대한 열정으로 책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벽에 걸려온 책장을 높이게 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배우를 마련해 주시려는 그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드러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일련의 일정에 맞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일련의 일정에 맞게 전개되었다.</p

